



‘달콤한 유혹’ 초콜릿에 빠지는 여행

농밀한 맛, 부드러운 감촉을 지닌 초콜릿은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음식이다. 특히 밸런타인데이에는 사랑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쓰이기도 한다. 유럽과 아메리카, 호주에는 초콜릿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여행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초콜릿 여행 상품과 명소를 정리했다.

글 박상현 기자

영국 런던 초콜릿 엑스터시 투어

초콜릿의 역사를 다룬 ‘초콜릿의 지구사’에 따르면 17세기 중반 런던에 최초로 초콜릿 하우스가 들어섰다. 당시 초콜릿 하우스에서는 “이 음료를 마시면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멀리하게 된다”고 인쇄된 전단을 배포했다. 대량생산이 가능해지기 전까지 초콜릿은 상류층만 향유하는 사치품이었다. 지금도 영국인의 초콜릿 사랑은 대단해서 1인당 초콜릿 소비량이 유럽 2위이다.

초콜릿 엑스터시 투어(Chocolate Ecstasy Tours)는 런던을 무대로 벌어지는 여행 상품이다. 3시간 안팎의 프로그램 세 개, 8시간 동안 이뤄지는 프로그램 한 개를 갖추고 있다. 토요일 오전 10시에는 런던의 고급 주택가인 메이페어(Mayfair)에서 여행이 진행된다. 유서 깊은 초콜릿 상점을 방문해 핫 초콜릿과 초콜릿을 먹는다. ‘찰리와 초콜릿 공장’을 쓴 작가 로알드 달이 좋아했던 초콜릿도 제공된다. 일요일 오전 11시에는 첼시(Chelsea) 지역에서 초콜릿의 기원과 역사, 최근 동향을 알아보는 투어가 마련된다.

목요일에는 저녁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초콜릿이 제작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초콜릿 캐테일을 시음하는 일정으로 구성된다. 종일 진행되는 투어는 아침식사와 점심식사, 택시 이동 등이 포함되며 다채로운 초콜릿을 맛볼 수 있다. 상품 가격은 40~165파운드이다.

www.chocolateecstasytours.com



미국 보스턴 초콜릿 투어

미국에서는 뉴욕, 필라델피아, 샌프란시스코 등 여러 도시에서 초콜릿 여행 상품을 판매한다. 보스턴 초콜릿 투어는 백 베이(Back Bay)와 사우스 엔드(South End) 등 두 곳을 걸어 다니며 초콜릿을 먹어보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토요일 오전 10시 15분에 시작되는 백 베이 투어는 호텔 쇼콜라(Hotel Chocolat)에서 다양한 초콜릿을 시식하고, 주변 명소를 돌아보는 일정으로 짜인다. 사우스 엔드 투어는 토요일 오후 2시에 집합해 펠리시티 스위트(Felicity Sweet)를 방문한다. 소요 시간은 약 2시간 30분, 상품 가격은 48달러이다.

www.bostonchocolatetours.com



벨기에 초콜릿 러버 파라다이스 투어

초콜릿 브랜드인 고디바(Godiva), 길리안(Guylian), 갤러(Galler)의 공동점은 벨기에에서 태동했다는 사실이다. 프랑스와 독일, 네덜란드에 둘러싸인 벨기에에는 작은 나라지만, 초콜릿의 명성은 주변국에 뒤지지 않는다. 초콜릿 러버 파라다이스 투어(Chocolate Lovers Paradise Tours)는 1주일 동안 벨기에 각지를 다니며 초콜릿을 즐기는 상품이다. 브뤼셀에서 출발해 브루게, 안트베르펜 등 주요 도시를 두루 거친다. 브뤼셀의 플라네트 쇼콜라(Planete Chocolat)에서는 초콜릿 장식을 배우고, 마농(Manon)에서는 초콜릿 제작 과정을 구경한다.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닮은 도시인 브루게에서는 초콜릿 디저트와 다양한 브랜드의 초콜릿을 맛본다. 호텔에 체크인할 때마다 초콜릿이 제공되는 점이 특색이다. www.intrend.com Y



▶ 오감을 만족시키는 초콜릿 박물관



프랑스 탕 레르미타주 ‘시테 드 쇼콜라’

전시물을 보는 행위에서 벗어나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지향하는 곳으로 지난해 10월 24일 개장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초콜릿 제조사인 발로나(Valrhona)에서 운영한다. 초콜릿을 시식하는 것은 물론 냄새를 맡고, 만져볼 수 있다. 만 5~12세 아이들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탕 레르미타주(Tain-L'Hermitage)는 리옹에서 자동차로 1시간 거리에 있다. **개장 시간** 오전 9시~오후 7시(일요일은 오전 10시~오후 6시), www.citeduchocolat.com

독일 쾰른 ‘초콜릿 박물관’

독일의 초콜릿 브랜드인 슈틀베르크(Stollwerck) 사의 전 회장이 1993년 세운 박물관으로 라인 강변에 위치한다. 유리알과 알루미늄으로 지어진 외관은 범선을 연상시킬 만큼 독특하다. 박물관 내부는 아스테크인들이 ‘신들의 음식’이라고 칭송했던 시절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초콜릿의 역사 전반을 알려주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개장 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오전 11시~오후 7시), www.schokoladenmuseum.de(독일어)

영국 요크 ‘초콜릿 스토리’

영국 중부에 위치한 요크(York)는 과거에 초콜릿을 입힌 킷캣(KitKat)이 처음 만들어진 곳이다. 이 도시의 킹스 스퀘어에는 2012년 3월 첫선을 보인 초콜릿 전시 공간이 있다. 초콜릿을 만드는 방법부터 전문가처럼 맛보는 요령까지 초콜릿과 관련된 다양한 지식을 쌓을 수 있다. 전시물이 요크 지역의 초콜릿으로 한정된 점이 특징이다. **개장 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30분(1월 1일과 크리스마스는 쉼), yorkschocolatestory.com

한국 제주 ‘초콜릿 박물관’

국내에서 유일하게 초콜릿을 주제로 꾸민 박물관이다. 지하 1층에는 초콜릿 만들기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며, 1층에는 초콜릿의 역사와 제조 공정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전시실이 있다. 2층에는 카카오가 초콜릿 바로 바뀌는 과정인 ‘빈 투 바(Bean to Bar)’ 쇼룸이 있다. **개장 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7~8월은 7시까지, 11월~이듬해 2월은 5시까지), www.chocolatemuseum.org